

“새로운 도약으로 도민에 감동 선사”

전북도립국악원, 증개축 공사·청년 예술인 일자리 창출·다양한 국악 공연 등 추진

전북도립국악원은 2023년은 38년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립국악원은 노후화된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도민 편익증진 등을 위한 총 사업비 239억 원 규모의 국악원 증개축 공사를 3월에 착공해 2024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창극단, 무용단, 관현악단 각 2명씩 총 6명의 비상임단원을 채용해 공연 질을 높이고 청년 예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상반기 찾아가는 국악연수 운영 및 국악 인재 육성에 힘쓴다. 올해 상반기에는 2022년 보다 107명이 증가한 1,034명이 등록해 관소리, 민요, 가야금, 무용, 풍물 등 13과목의 교육을 진행 중이다.

청소년을 위한 국악 교육으로는 청소년 취타대와 무지개국악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취타대는 오는 8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개闭幕式 및 폐영식에서 공연을 펼쳐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고품격 작품개발에도 진력한다. 관현악단은 전북도의 정체성과 역사

성을 관현악의 선율에 담아 9월에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창극단은 안테르센의 동화 ‘어머니 이야기’와 전통설화를 엮은 이야기 ‘옴매(가제)’를 정극으로 제작해 10월에 선보인다.

무용단은 전라북도의 우수한 문화자원인 깃발과 풍어제를 춤가락으로 표현한 무용극 ‘바다와 어부의 노래-바다소리’(가제)를 11월에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오는 3월 1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공동주최로 ‘신춘음악회’도 개최한다.

올해 상설공연 ‘목요국악예술무대’는 기존의 공연작품 중에서 호평을 받았던 레퍼토리를 엄선한 재공연과 예술단원이 직접 기획, 연출한 창작무대로 구성한다.

도립국악원은 전북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교부 주관 지자체 공연단 해외파견 공모 사업에 선정돼 4월에 하와이(호놀룰루)에서 공연 상세일정 및 프로그램을 조정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일본 이시카와현과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주 및 LA의 공연을 통해 우호증진과 해외기업 유치, 해외 시장 개척 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의 호전에 따라 국

악 공연을 확대한다.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도·시·군 지원공연 및 복지시설과 학교,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펼친다. 지원공연으로 지역축제 행사 등과 연계해 지역문화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사계절예술축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전북의 비상을 흥과 신명 넘친 공연으로 도민과 함께 나눌 계획이다.

이 밖에 지난해 국립남도국악원과 관현악단의 상호교류 공연에 이어 올해는 무용단이 경기아트센터와 작품교류를 추진한다. 교류공연은 지자체 상생교류의 일환으로 타 시·도 예술단과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예술 교류를 통해 국악원의 대외적 위상을 선양한다.

도내 순회공연으로는 군산과 부안을 찾아가는 등 2023년에는 총 70여회의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희성 도립국악원장은 “도립국악원은 전북도의 대표 국악기관으로서 2023년에도 도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예술단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탄소예술기획전’ 참여 작가 모집

전주문화재단, 20~24일 접수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20~24일까지 ‘2023 탄소예술기획전’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9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3회차를 맞은 ‘탄소 예술기획전’은 2021년을 시작으로 총 23명의

탄소예술작가를 발굴했다.

올해는 전문가 회의심사를 거쳐 총 13명의 작가를 선정할 계획이며, 공모에 선정된 작가는 탄소예술기획전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창작지원금 3백만원과 탄소 소재 성형공법별 심화교육, 기존 전시 참여자 1:1 멘토링, 작업에 사용될 탄소 소재, 홍보물 제작 및 작가 홍보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지원자격은 탄소 소재에 관심있고, 장르 개척과 탄소예술 작가로서 도약의 기회를 희망하는 도내 시각예술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20일부터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모 및 제출서류를 확인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창작기획팀(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



전북도립미술관 전경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 이하 미술관)은 전시해설 자원봉사자(도슨트) 양성 교육 수강생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술관은 영호남 지역 유일의 도슨트 전문 양성 교육기관으로 올해 5화제를 맞았다.

이번 과정은 포괄적인 동서양 미술사에서 벗어나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국 근현대미술사 중심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미술 전공자 또는 미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고,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14회 매주 목요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후 우수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본관 기획전의 전시해설자로 활동할 수 있다.

참가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술관 누리집(www.jma.go.kr)에서 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9일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제19회 군산어르신 예술제 및 작품전시회가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군산 어르신 예술제·작품전시회 성료

군산노인종합복지관, 70여개 작품 전시·노인복지 기여자 시장표창 등 받아

군산시는 9일 군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미순)이 주관하는 제19회 군산어르신 예술제 및 작품전시회가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술제는 어르신 MC와 진행하며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장으로 꾸러졌다.

작품전시회에서는 서화, 서예, 문학, 사진 등 약 70여개의 작품이 전시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으며 노년의 밝은 노후와 여가를 즐길 줄 아는 새로운 노년상을 정답했다.

이날 행사는 소통하는 대화와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어 어르신 및 일반 시민 등 행시장을 찾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꾸러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날 예술제에서 노인복지 기여자 총 2명이 시장표창을 받았으며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500여명의 어르신을 대표해 시니어로빅반의 정락순(85) 어르신이 수료증을 수료했다.

정미순 군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이 행사를 많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고 이번 행사를 통하여 삶의 활력을 찾고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을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문화 확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참여 업체 모집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4일까지 접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오는 24일까지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근로자가 불편을 느끼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여성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여성친화일촌기업으로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자가 있는 기업,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등이다. /장은성 기자

올해는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전용 생활편의 시설 개·보수를 목적으로, 3개 기업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정희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취업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아울러 기업의 여성구인 확대를 유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청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www.jbwcre.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또는 취일지원팀(063-254-3716)으로 문의 후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